오름탐방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지독가능하는, 지생대론은 호를 타보는의 시고는

참여환경연대는 올해, 지속가능한 오름 탐방을 위해 「소름탐방 가이드라인」을 기획/제작 후 이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름탐방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탐방객 분산을 위한 **추천 오름 제안**할께요." "00오름에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어요!"(**제보**)

※ 의견주실 때는 <제안 이유>와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주실 곳

이 메일. js@jejungo.net

홈페이지. www.jejungo.net (회원게시판 글 작성)

작지만 큰 힘!

참여환경연대의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읽고난 소식지를 주변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회원가입 안하젠?" 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큐알코드에 접속하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강향임: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더 나은 제주를 위한 마음 모아주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정둘: 4.3기행을 계기로 가족이 되셨습니다. 생태안내자 양성교육도 함께하고 있는 쌤,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슬기: 단체의 활동을 KBS 환경스페셜에서 보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일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계좌 | 제주은행 12-13-001231

양영수: 사무처에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더 나은 제주를 위한 회원님의 활동, 참여환경연대도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지: 성산 청년이자, 생태관광협회 신입 직원인 반가운 현지님이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제2공항 막아내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 나가요 +_+

양용석: 단체 활동을 지켜보다, 자발적으로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

김영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교육생 선생님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체와 함께, 즐거운 활동 이어나가요~!

정용호: 좌재훈 회원님의 권유로 단체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고영기: 좌재훈 회원님의 권유로 단체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좌재훈 회원님의 권유로 단체와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함께 만들어 나가요!

김한수: 좌재훈 회원님의 권유로 가족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창두: 생태안내자 교육생 선생님이 일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민: 오름을 부탁해 캠페인을 보고, 자발적으로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제주가 고향이나, 지금은 외지에 나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회원님의 마음 받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구장춘: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함께 지켜 나가요!

양은희: 온라인 회원가입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혼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연락주셔서 전화로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태봉 고성호/김영신 김갑성 김국주 김종현 김혜전 대효 문성철 손노선 앙창용 오승진 유성준 윤정우 이자후 이재홍 이중현 정용하 허남춘 허진영/신성희 황윤익

강경구,강경민,강경민,강경수,강경숙,강경식,강경자,강기옥/김경환,강기탁,강대규,강대준,강덕일,강리정,강명희,강문수,강민관,강민철,강보배,강보혜,강봉균,강사윤/권희경,강석반/좌순영,강석보 강석주,강성민,강성의,강성일,강소전,강수경,강수량,강수민,강순문,강술생,강숭식,강승진,강승화,강양선,강양석,강영미,강영아,강영애,강영임/김형근,강영진,강원보,강은아,강은주,강은희,강응철, 강인창,강재성,강재호,강정식,강정인,강정훈,강종우,강주란,강지윤,강진숙,강창민,강창병,강창보,강춘옥,강충민,강태심,강태운,강하춘,강한성,강향임,강형기,강형준,강혜순,강호진,강희욱,고경남 고경대,고경숙,고경심,고경환,고경희,고경희,고권진,고규라,고금순,고기원,고기협,고도호,고동필,고맹훈,고명순,고명희,고민실,고병수,고봉석,고봉석,고봉수,고봉진,고부응,고승완,고안나, 고영식,고용희,고은택/조옥란,고임선,고재봉,고정권,고정희,고진석,고창균,고창빈,고혁진,고혜령,고호성,고홍철,고희범,고희범,고희범,과의선,권인,권숙희,권정우,그린미나,길민철,김가람 김경민,김경옥,김경자/최승원,김경주/홍양순,김경학,김금순/고상진,김기용,김기택,김나영,김난영,김남흥,김대경,김대영,김동선,김동원,김동윤,김동은,김동전,김동주,김두한,김명식,김명혜,김미경 김미경,김미령,김미역,김미영,김미정,김민정,김민정,김민지,김민호,김범석,김병근,김병수,김병주,김복희,김봉헌,김상미,김석천/양행숙,김선옥,김선정,김선형,김성수,김성아,김성언,김성용,김성일 김성주,김성진,김성진,김성현,김성현,김성희/현경윤,김소담,김소영,김소운,김수남,김수오,김수지,김숙이,김순영,김순자,김순희,김시형,김시형,김시영,김애자,김양보,김양훈,김영근,김영기,김영범 김영숙 김영익 김영주 김오순 김완병 김용재 김우준 김원희 김유신 김유영/허순희 김유진 김은경 김은교 김은정 김익태 김일우 김재민 김재연 김재현(모·신희순) 김재형 김재형 김재형 김재훈 김정규 김정 둘,김정선,김정수,김정숙,김정숙,김정숙,김정순,김정아,김정훈,김정희,김종현,김종현,김종현,김주석/안명희,김주엽,김지선,김지언,김지영,김지택,김지환,김지훈,김진미,김진우/강경희,김창렬,김창진,김칭 현·김창호·김천우·김철우·김청우·김희준·김태관·김태권·김태구·김인옥·김태영·김태윤·김태일·김태형·김택진·김평선·김한도·김한범·김향순·김형국·김현국·김현국·김현국·김현석·김현아·김현지·김현호 김현희·김형남·김형미·김형석·김홍석·김화자·김효근·김효선·김희경/문경언·김희라·김희선·김희영·남전구·남현옥·남현옥·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한솔·라문/김미순·라영숙·류상철·류성필·류소 진,명지용,,문경언/김현정,문경호,문근식,문대림,문덕철,문미희,문선희,문성만,문숙미,문승찬,문용포,문용혁,문정란,문정호,문준영,문창건,민우기,박건도,박기택,박동신,박인우,박병익,박선경,박선 영박성미,박성숙,박성예,박성오,박수미,박수홍,박영훈,박예진,박유라,박유립,박재성,박정경,박정연,박지웅,박진향,박진향,박진향,박진향,박진향,박현주,박형근,박혜령,박출숙,반희성,배재숙,박가 윤,백운철,변대중,변정양,변창국,부상철,부선희,부춘성,부현정,서병협,서영표,서지연,성미연,손명철,손미영/고승남,송광식,승규진,송미량,송미량,송민호,송부자/김중식,송석범,송성희,송수경,송승 용,송승헌,송시욱,송영숙,송원일,송재호,송재호,송창권,송창용,송창윤,송철민,신경심,신동원,신동헌,신성회,하진영,신수현,신연슬,신영규,신윤수,신익환,신정미,신지희,신창원,신효주,심규호,안경 아.안기중,안기태.안성산,안은정,안창규.안충희,안현준.안혜경,양공실 양공엽,양김진웅,양동규,양리옥,양석표,양선순,양성이/현홍민,양성희,양수남,양연숙,양연숙,양영수,양영순,양윤연,양윤택,양 은순,양인실,양정순,양조훈,양천호,양한권,양행숙,김석천,양홍찬,에스엠영농조합법인,여창수,염정아,염정아,오경숙,오동정,오동준,오명숙,오상원,오성,오성배,오소연,오수안,오승국,오승현,오승 현오승훈,오심정,오연숙,오영덕,오용진,오윤식,오은주,오정은,오정훈,오현애,오희숙,우연순,원소희,위기은,위성곤,유성찬,유용한,유재은,윤기혁,윤동진,윤미소,윤상효,윤석영,윤석찬,윤상 현.윤순희,윤양선,윤영,윤영민,윤학철,윤호경,이강학,이경미,이경미,이경원,이경호,이경호,이규배,이기영,이길주,이길훈,이민정,이상봉,이상철,이상철,이상훈,이석문,이성만,이성마,이성용,이송숙 이송은 이순미,이순주,이승록,이승록,이승민,이영미/임관홍,이영웅,이영호,이원석,이유미,이윤아,이윤중,이은경,이은경,이은구,이재숙/양인종,이재영,이재인,이정규,이정민,이정숙,이정심 임기수임기환임미경임연희임영근임용주임지순임창회임현순장달리장소영장수영장순영장용창장은진전미희전상봉전소은전순희전영웅전은경전인수전인수정경선정경효정규성 영남폐차장 정명주 정명주 정미경 정미자 정민구 정석희 정수정 정순자 정승훈 정승희 정은정 정향숙 정홍준 정희종 제스코마트 제종길 제현우 조강섭.조남중,조성경,조성식,조성윤 조승희,조영규 ·조옥미·조옥희·조은희·조진국·조창범·조해숙·조현훈·좌경희·좌명은·좌순영·좌용권·좌용철·좌윤택·조숙희·좌재훈·주석종·지창규·진경심·진관훈·진대웅·진정현·진희권·진희종·차용석/고미정/차준범 차행철 채인숙/강철남 청춘공인중개사사무소 최낙진 최영석 최영우 최인영 최종우 최진화 최현 최혜란 편준규 하홍순 한동헌 한명경 한명용 한상우 한석원 한송화 한애경 한재호 한태호 허남춘 허윤석,허은정,허제훈,허종훈,허진영,신성희,허진호 현계련,김대근 현광진 현국봉,현기욱,현길남,현동혁,현명택,현문권,현문석,현문철,현민형,현상훈,현성욱/오지행,현성필,현승용,현승철,현영심 현영심,현원학,현혜경,현희경,홍경숙,홍경우,홍기표,홍상철,홍선영,홍성호,홍성회,홍승호,홍영자,홍영철,홍정협,홍지연,홍하림,홍화균/정수경,황경수,황금신,황우화

* 회비 CMS 납부 시 3개월까지 소급 적용되어(통장에 잔액 부족 시) 이월되는 상황 사안에 따라 2~3달 정도 누적 출금되는 사례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월 샄린샄이

※ 사무처의 실수로 명단이 누락되신 회원님은 연락주세요 ^__′

구분	세부	항목	3월	4월
	회비수입		7,931,000	7,961,000
	사업수입		200,000	0
401	특별후원금수입		50,000	0
수입	기타수입		509,704	166,620
	전월이월		27,615,920	26,635,291
	수입 합계		36,306,624	34,762,911
	인건비(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적립 등)		6,376,790	6,374,430
Γ	운영비	사무용품비	0	27,200
		도서인쇄비	0	40,000
		통신비	294,183	132,047
		세금과공과	90	59,690
		지급수수료	358,330	444,950
		수도광열비	280,710	124,970
		복리후생비	361,020	321,740
지출		소모품비	38,400	83,330
시골		건물 관리비	28,000	28,000
		건물 임차료(연세)	0	8,000,000
		연대 사업비	100,000	0
		출판 사업비	989,060	0
	사업비	시민참여 사업비	0	887,900
		환경교육 사업비	260,400	203,700
		정기총회 사업비	30,500	0
		참여자치 사업비	189,000	479,000
	기타지출 (회계간 전·출입 포함)		364,850	36,470
	지출	합계	9,671,333	17,293,427
	이월 총계		26,635,291	17,469,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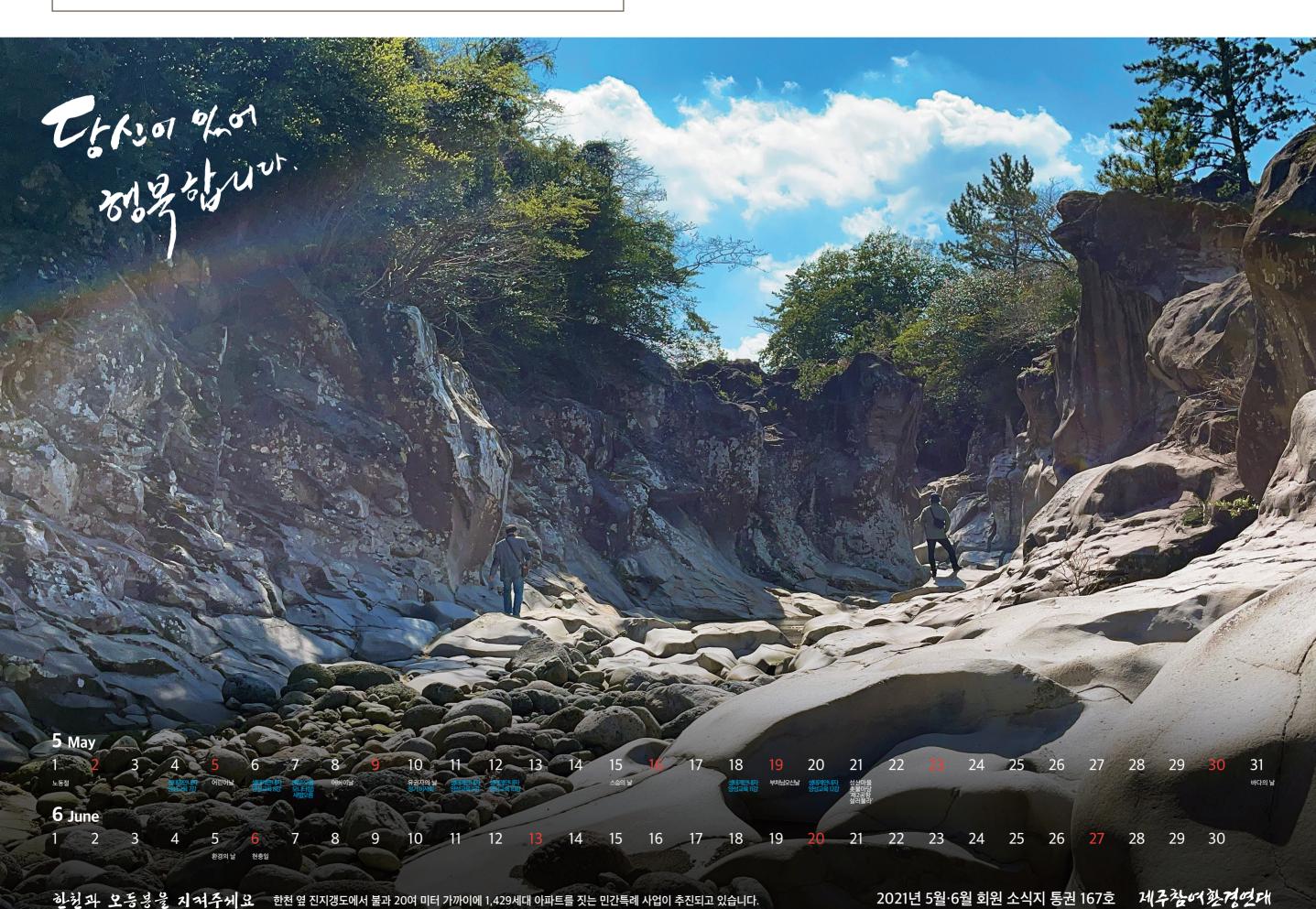
3원	투명회계	
_	특별후원금수입	KBS환경스페셜 시청 후 일시후원 4.3기행 참가비 청년재다 일경험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예금이자
지출	통신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사무처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구글 드라이브 사용료, 문자구입비 결산소득세 복사기임대료/ CMS,SMS수수료/ 정수기관리비/ 휴먼소프트웨어 사용료/ 곳이인증 수수료/ 이카운트 사용료/ 일러스트포트산 사용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건물관리비 연대사업비	난방용가스 2통, 전기료 사무처 식대 원두 및 다과구입비
	환경교육사업비	교육이 단체 및 물등표 생태안내자 교육을 위한 체온계 구입, 환경사업 지원을 위한 영문 번역료 키지노 절차중단 촉구 현수막 인쇄, 민간특례 투기정황 확인을 위한 등본 발급비 상근자 3인 연말정산 환급금
4월	투명회계	
수입	기타수입	청년재단 일경험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출	통신비	형광펜, 서류정리파일, 호치키스 핀 제거기 뉴제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민일보 구독료 사무처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구글드라이브 사용료, 문자발송비 지방소득세 복사기임대료, CMS,SMS수수료, 정수기관리비, 휴먼소프트웨어 사용료, 이카운트 사용료, 정수기 관리비, 홈페이지 도메인비
		전기료, 난방용 가스1통 구매
		사무처 식대
		4.3기행 버스대절비, 강사료, 도시락 및 다과구입비 생태안내자양성교육 추가 강사료(2인)
		생대안내사양성교육 주가 강사료(2인) 도시공원민간특례 기자회견 현수막 및 피켓제작비, 민간특례 투기정확 확인을 위한 등본 발급비

사무처 활동가 지방세 환급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우리 단체와 함께 하는 방법 → 주위 분께 회원가입과 후원을 권유해 주세요.

| 회비납부 또는 후원 계좌 | • 제주은행 12-13-001231 • 농협 901022-55-000435 (예금주 제주참여환경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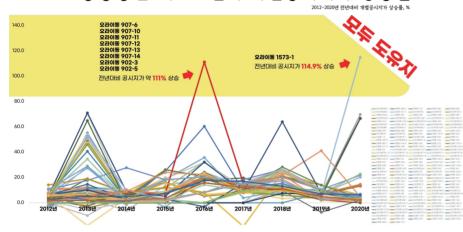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 4월 14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의 급등이 있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스스로 조사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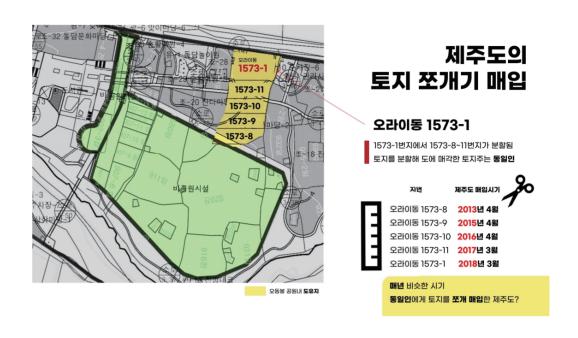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오등봉공원의 땅을 샀고, 이 땅들은 다른 이웃 토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여덟 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도정의 토지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하여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등봉공원 내 183필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도로)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됩니다. 제주도정은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로 당초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의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아파트 운운하면서 분양가가 급등할 때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투명성 확보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제주도정에 요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말뿐인 해명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제주도정이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활동이모저모

3월 2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불허 촉구 도의회 앞 피케팅

3월 15일 [성명]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 측정만 40일째? 제주도정의 드림타워 봐주기 특혜 즉각 중단하라!! 3월 17일 [성명] 제주도정과 드림타워의 짬짜미 행정 드러났다. 도의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

[공동성명] 제주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 거부하라! 3월 19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불허 촉구 도의회 앞 피케팅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월 22일 [성명] 도의회는 도지사의 참고용으로 전락하려는가? 도의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절차 중단하라!

드림타워 카지노 도의회 절차중단 촉구 현수막 게시 3월 23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제주도와 드림타워의 짬짜미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3월 24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 모집 시작 [성명] 드림타워 사업자는 도민고용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반대 도의회앞 피케팅 3월 26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논의를 위한 토론회

4월

4월 2일 [회원기행] 제주 4.3 함께 걷는 길

4월 3일 제2공항 백지화 대통령 결단 촉구 피케팅(KCTV 사거리) 4월 5일 [공동 기자회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4월 6일 곶자왈포럼 워크숍

[성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지갱도 관련 전문기관 보고서 의견 누락. 부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결의대회(제주도청앞) 4월 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불허촉구 도의원 면담

4월 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불허촉구 도의원 면담 [반박성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제주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4월 10일 [공동논평] 오등봉공원 막개발 아파트 1,429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

4월 13일 [기자회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 포착 관련 기자회견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1강. 생태안내자의 이해 4월 15일 [논평] 전직 공무원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토지 공시지가, 매입후 급등.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기 [공동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정책의 진정성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2강. 제주의 형성과 화산활동

4월 17일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촛불대회(제주시청앞)

4월 21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4월 22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4강. 제주의 곶자왈 4월 23일 화북 펌프장 제보 관련 현장답사

4월 20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3강. 한라산의 이해

4월 24일 제주를 지키는 촛불광장(제주시청) 4월 27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5강. 제주의 오름

4월 29일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6강. 제주의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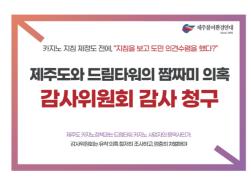
도시공원 민간특례 기자회견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4.5)

정부차원에서 지정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제주도정은 해제될 때 예상되는 개발에 비할 수 없는 최악의 난개발을 불러오 는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5일 오등봉공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최악의 난개발이다"외치는 기자회견 을 가졌습니다. 이 날 오등봉공원 뒤로 펼쳐진 한라산과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투기의혹 기자회견(4,13, 5.1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난개발과 투기로 얼룩져 있습 니다. 제주도의 전 고위직공무원의 노모를 비롯하여 현 직 공무원, 페이퍼 회사 등이 공동으로 사들인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의 토지는 투기 정황이 너무나 뚜렷 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도 제주도정이 개 인으로부터 토지를 쪼개기로 매입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방조하고, 도유지의 공시지 가가 한해에 111% 상승하여 제주도정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장으로 가지 않게 제주도정은 도시공원 민간특 례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드림타워의 짬짜미 의혹,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3.23)

카지노영향평가가 제주도정이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림 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진행한 도민 의견수렴은 제주도정 이 카지노영향평가지침을 제정하기도 전에 이루어졌 습니다.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도민 의견수렴은 지침 이 전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신비롭게도 제주도정의 나중 에 제정된 지침과 설문조사 대상과 내용이 일치하였 습니다. 신통방통한 드림타워 카지노 점쟁이의 병풍 뒤에 제주도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촛불광장(4.24)

양적 성장에 골몰해 온 제주도, 그 끝판왕은 제2공항 추진 이었습니다. 제주도민이 막아낸 제2공항,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난개발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머리 를 맞대는 촛불광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단체 이길주 이사님이 사회로 참가자 대부분이 발언하는 전에 없는 진기한 집회였습니다. '집단지성이 이런거구나'를 느끼 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길주 이사님 얘쓰셨습니다.



[회원기행] 제주 4.3기행(4.2)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란 거지"현기영 소설가의 말을 되새기며 73년전 소리없이 떨어졌던 꽃들을 따라갔습니다. 아직도 '4.3민중항쟁'을 새기지 못한 백비를 세우는 힘겨운 싸움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 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던 제주섬과 우리나라를 생각하 였습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님 의 길안내로 더욱 빛났던 기행이었습니다.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백약이오름 모니터링(4.19)

올레쌤들의 훼손오름 모니터링 '백약이'소식 전합니다. 우리 쌤들은 백약이오름을 오를 때도 붉은 속살 위를 걷기 미안하다고 뱅뱅 돌아가는 길을 따라 모니터링 구간 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요. 북쪽 정산에도 모니터링 구간 과 별반 다르지 않거늘 왜 백약이오름은 출입제한 구갈 을 제한적으로 정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용눈이오름과 달리 이곳 구간에는 풀씨 하나 내려앉지 않은 채 지난 달과 똑같은 모습,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라생태길라잡이] 안뜨렁물 만나러 가는 길(4.24)

길라잡이 쌤들은 4월 24일,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뜨 렁물 만나러 가는 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입 쌤들 은 곤을동 마을과 안뜨렁물에 대해 알아보고, 바닷가에 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 수제비도 떠 보며, 아이 가 되어 놀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입 쌤들 이 직접 강사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쌤들의 활약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름을 부탁해"(4.30)

인기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후로 집중되는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오름들..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야외 를 찾으면서 오름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우리 단체는 탐방객들에게 오름의 훼손되기 쉬운 특성을 알리고, 특정 오름에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탐방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인 "오름을 부탁해"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4월 30일 금오름(한림읍)을 모니터링을 갔을 때는 기괴할 정도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오름은 신음하고 있 는데 탐방객들은 같은 포즈로 줄서서 사진찍기하는 모습 을 보며, "오름을 부탁해"가 꼭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

우리단체의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이 4월 1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열정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교육생 들과 함께 '한라산'을 공부했는데요. 좌명은 선생님의 실내 이론강의 후, 어승생 오름에서 한라산의 식생 과 지형, 지질을 보고 익혔습니다. 이젠 강의 막바지 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편한 점을 마다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는 교육생 분들 덕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곶자왘(4.22)>



<제주의 오름(4.27)>